

교섭 결렬, 조정 돌입

2022년 집단교섭 제시안(3차)

1. 임금인상 요구안

회사명	제시안	회사명	제시안
계양전기	월기보급 11.000원	대원산업	월기보급 30.000원
말레동현필터	추후 제시	동양피스톤	월기보급 20.000원
대한솔루션	월기보급 30.000원	신한발브공업	추후 제시
에스제이엠	추후 제시	모베이스전자	월기보급 20.000
우창전기	월기보급 10.000	한국외이퍼	추후 제시
현대캐피코	추후 제시		

2. 2022년 금속노조 통일 요구안

1) 산업안전협약

⑤항 :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산업안전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시행 방법에 관하여 조화와 협의 후 추진한다.

2) 위험성 평가

①항 :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사업장의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 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②항 :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해체,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식,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화와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③항 :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사 동수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서 결정한다.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확대간부 교육시간

현행유지

3. 2022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1)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②항 :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본 조합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③항 :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본 조합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항 :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본 조합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4. 2022년 경기지부 공동 요구안

1)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

2020년 경기지부 집단교섭 합의사항을 준수한다.

2)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 세탁

①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근무환경에 적합한 작업복 및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경기지부관계 사용자는 노사간 공동으로 필요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3) 조합 추가전임 인정과 채용보장

현행유지

2022. 06. 30.

금속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대표 

9차 집단교섭, 결렬

6월 30일(목) 2022년 집단교섭 9차 교섭이 열렸다. 사용자측은 11개 사업장 22명, 노동조합은 10개 사 37명이 참가했다.

모베이스전자 사측이 대표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 안정화하고 상호 양보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인사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안을 적극적으로 내서 진전하자”고 답하며 교섭을 시작했다.

3차 제시

사용자의 3번째 제시안에서는 ① 11개 사 중 6개 사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5개 사는 제시하지 못했다. ② 지역 노동자 세탁소 관련 요구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제시안을 냈으나, ③ 조합 추가전임 인정과 채용 관련해서는 현행유지 안을 내 실질적으로 기존합의에도 후퇴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금인상 관련 추가 제시할 사업장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었고, 노조 통일요구 중 올 해부터 시행 중인 확대간부 교육 등 참여를 위해 2박 3일의 교육시간 요구해 적극적으로 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제시안 기대 못 미쳐

정화와 일부 안 진전을 위한 논의 등 노력했으나, 사용자는 추가 안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규선 지부장은 “9차까지 성실 교섭 노력했지만 안이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임금은 물론이고 노조 통일요구, 지부 공동요구도 마찬가지. 전국의 지부들이 지난 주 금속노조와 함께 결렬을 선언했으나 경기는 한 주 더 노력했는데 안타깝다. 노조 일정에 맞춰 함께 조정 들어가겠다. 추가 안이 있을 시 교섭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하고 교섭을 마쳤다.

차기 교섭은 진전된 안이 있을 시 일정 협의해 진행한다. 교섭 후 교섭위원들은 모베이스전자 현장순회를 하며 7월 총파업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집단교섭 사업장 대표자들은 모여 이후 교섭과 투쟁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